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69호

발행인 : 조민제
발행일 : 2015년 8월 24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유시영 처벌 올해 안에 끝낸다!

4년만에 법정에 세워도 처벌 의지 약해

유성지회가 4년 투쟁으로 유시영 대표이사를 법정에 세웠다. 검찰이 끝까지 비호하는 것을 재정신청까지 승리해서 얻어낸 결과였다. 재정신청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지만 유성지회는 해냈다. 그러나 법정에 세워도 검찰은 여전히 처벌의지가 없다.

유성지회 조합원들의 고통 날로 심각해져

투쟁이 워낙 장기간 이어지다보니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회사는 여전히 해고, 징계를 남발하고 있고, 각종 고소고발도 끝이 없다. 그러다보니 조합원들의 고통이 날로 심각해진다. 생계의 어려움, 매일 투쟁으로 인한 피로감, 정신적 고통까지 이루 말할 수 없다. 최근 유성영동지회 이정훈 지회장은 안면근육 마비로 입원까지해서 안타까움을 샀다. 유성지회 동지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다. 거기다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보이는 조합원들도 많다.

유성 투쟁이 조속히 승리로 끝나는 것만이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끝낼 수 있다. 정치검찰이 물어버릴 뻔한 사건을 금속노조의 투쟁으로 간신히 법정까지 끌고 왔다. 이제 법원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한다.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해야한다.

전국 도보순회투쟁에 나선다

유성지회는 올해 안에 반드시 유시영 대표이사 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국순회투쟁에 나섰다. 19일 천안법원 앞에서 오체투지를 시작으로 경주 발레오만도지회, 대구 상신브레이크지회, 구미 KEC지회, 유성 영동지회를 순회했다. 24일부터 27일까지는 도보순례투쟁을 전개한다. 유성 아산공장에서 시작해 평택 쌍용차지부, 수원, 과전을 거쳐 서울 대검찰청까지 도보로 순회한다. 유시영이 처벌될 때까지 유성의 투쟁은 멈추지 않는다.

한국타이어 현장에서 첫 집회!

한국타이어지회가 설립 이후 처음으로 현장에서 집회투쟁을 전개했다. 올해 임단협에서 또다시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한타 자본의 행태에 분노해 더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타 자본은 올해 어용노조와의 임단협에서 기본급 1% 인상, 월차 폐지 등을 들고 나왔다. 한국타이어지회는 비록 교섭권은 없지만 한국타이어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임금을 결정하는 임단협에 목소리를 내기 위해 현장 집회를 결정했다. 회사의 들러리에 불과한 어용노조를 넘어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자본에게 똑똑히 들려주기 위해서였다.

한타 자본은 구사대를 동원해 인간 바리케이트를 치며 가로막았다. 금산공장에서는 뚫고 들어가 현장집회를 사수했지만 대전공장에서는 아쉽게도 정문 밖에서 투쟁을 진행해야 했다. 이번 투쟁으로 어용노조 하에서 제대로 목소리조차 내지 못했던 현장 노동자들의 진짜 외침이 무엇인지 자본에게 똑똑히 들려주었다. 이제 한타지회는 이 힘찬 첫걸음이 더 큰 걸음이 되도록 만들어갈 것이다.

유성지회 도보순회투쟁

- * 일정 : 8월 24일(월) ~ 27일(목)
- * 장소 : 유성아산, 평택쌍용차, 수원역, 과천 정부청사, 대검찰청, 서울 유성본사

노동시장 구조개혁 저지!

민주노총 집중행동

- * 일시 : 8월 28일(금) 13시 30분
- * 장소 :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